

## 종합·해설

## ■ 사회인 야구 열풍…광주전남 인프라 취약



광주 북구 용전동 용산다리 인근 둔치에 조성된 '용산 야구장'에서 사회인 야구팀이 경기를 벌이고 있다. 간단한 백 네트와 그물망, 텐트로 만들어진 임시 기록실 등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지만, 선수들은 경기에 여념이 없다.

## 팀 500개에 제대로된 구장 하나 없다

대부분 흙바닥에 조잡한 그물망…동호인 안전 사고 우려

강진 베이스볼파크 매주 500명 찾아…야구 메카 자리매김

광주시 등 타 지자체도 건립 지원, 투자 유치 적극 나서야

'야구 열풍' 속에 광주·전남지역 사회인 야구팀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야구 인프라가 떠나 부족하다. 야구장 수는 제자리 걸음인데도 열악한 환경까지 겹쳐면서 사회인 야구 경기 치질 및 선수들의 부상 우려도 심각하다.

◇구장 떠나 부족=광주 지역 사회인 야구팀은 400~500여 개로, 동호인 수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야구장 시설은 떠나 부족하다. 현재 광주 지역 사회인 야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장은 동성고 구장, 진흥고 구장, 무등중 구장, 서석 초등학교 구장, OB 맥주공장 구장, 첨단 KT 구장, 롯데 구장, 첨단 종합운동장, 용산구장 등 15개 면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 33개팀 이상이 경기장 1곳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고교야구가 주말 리그로 진행되면서 사회인 야구팀이 학교 운동장을 쓰기는 더 어려워지면서 야구장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시 생활체육회 야구연합회 소속팀 50개 클럽은 서석초등학교와 동성

고·무등중 등 야구부가 있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사회인 야구팀은 기업체 구장 또는 영산강 지류 고수 부지에 마련된 구장을 조성하고,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쓸만한 경기장 하나에서는 주말에 4개 경기, 휴일에는 다섯 경기마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리그는 시간을 제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기시간이 지연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 가운데 용산구장과 첨단구장

은 영산강 지류의 둔치에 마련돼 폭우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를 할 수 없다. 일부 리그는 광주 지역을 벗어나 광주 인근 화순 도곡, 담양, 나주 난평 등지로 원정경기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도 열악=기존 야구장 시설과 주변 환경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 구장이 흙바닥에 간단한 백 네트를 설치해 놓고 경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물함, 샤워실 설치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덕 아웃 또한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고, 덕 아웃이 없는 곳도 허다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대신 기업 및 일반인이 앞다퉈 야구장 건립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문을 연 (주)강진베이스볼파크는 국내 유일의 정규 4개 구장 동시 이용과 최대 야구캠프지로 명성을 얻으면서 야구인들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경기장이 아닌 대부분 사회인 야구팀들이 납부한 회비로 경기장을 조성하고,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쓸만한 경기장 하나에 어려움을 겪자 사회인 야구팀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주식회사 광주베이스볼이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주)광주베이스볼은 광주와 광주 인근에 7개 면의 야구장을 관리·운영하면서 110개 팀 12개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야구장 건립 지원 나서야=축구장과 달리 웨스, 그늘, 넓적한 공간 등이 필요한 야구장은 부지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건설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자치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시설도 열악=기존 야구장 시설과 주변 환경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 구장이 흙바닥에 간단한 백 네트를 설치해 놓고 경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물함, 샤워실 설치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덕 아웃 또한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고, 덕 아웃이 없는 곳도 허다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원인 박정운 (42)씨는 "최근 사회인 야구 동호인



철재로 만든 덕 아웃에 선수와 가족들이 모여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장비를 미닫히 둘 곳이 없어 뜻자리 위에 장비를 놓아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프로야구 2군 리그 경기

가 열리고 있고 동계전지훈련, 사회인 야구대회 등 매주 500여 명의 야구선수 및 가족들이 강진베이스볼파크를 찾고 있어 명실공히 국내 최대 야구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김성한 전 기아타이거즈 감독이 나주 난평 지식강 일원

10만㎡ 부지에 전연·인조 각각 2개

구장을 동시에 갖춘 4면 구장과 부대시설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와 투자유치협약을 맺었다.

따라서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은

수가 조기축구 동호인 수를 능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야구장이 부족해 경기 진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공공체육시설 중 시설 비용 투자가 적은 축구장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야구장은 시설비 등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

산

하

시

행

위

회

이

발

표

한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

국

내

야

구

위

회

이

는